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 방향

우리 사회에는 생물다양성을 바라보는 매우 다양한 인식의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동식물의 보전을 위해서 인간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에서부터, 동식물을 인류 발전의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 인간을 위해서는 폭넓은 포획과 도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인식의 격차가 크지만 생물자원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 가치가 무한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장 성 현 | 환경부 자연자원과 서기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료
국무조정실 정책홍보심의관실, 환경부 교통환경과, 자연정책과 등 근무
tel. 044-201-7251 | shjang7@korea.kr



“아아, 여우는 사라지고....”

여우가 사라진 뒤에도 눈은 내리고 또 내리는데
그 여우 한 마리를 생각하며 이렇게 눈 많이 오시는 날밤에는.....”
시인 안도현님의 ‘그리운 여우’의 한 대목이다.

그동안 잊고 지낸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여우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설도 있고, 시인이 존경하는 선배시인 백석(白石)의 ‘여우난곶죽^❶’에 대한 답시라는 설도 있다. 이렇듯 때론 그리움의 대상으로 때론 공포와 영악함의 상징으로 민화와 설화 속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여우는 그만큼 우리에게 친근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무분별한 포획과 도시화에 떠밀려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든 여우는 멸종위기(멸종위기종 1급)에 처해 있으며, 비단 여우뿐 아니라 단군 신화 속에서 우리 선조로 일컬어지는 곰(반달가슴곰) 또한 종복원 사업을 통해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종의 멸종은 지구상에서 한 종이 사라졌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인류의 크나큰 경제적·사회적 손실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식량난 및 신종 전염병 등 수많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자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생물종의 손실은 곧 자원을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UN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80%가 넘는 신약이 생물자원을 소재로 만들어 지고 있으며, 2030년에는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IT기술 등이 융합한 바이오 산업이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그 동안의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로서는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보호지역 확대 등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 추진 방향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전문(Preamble)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근원적 가치는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한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 또한 서식지 보호 및 멸종위기종 복원 등 보전 정책을 선차적으로 공고히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들의 참여도와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 서식지 내외 보전기반 확충

'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은 11.6%로 OECD 평균인 16.4%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좁은 국토면적과 2차 산업 위주의 경제 발전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주민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DMZ, 지리산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국내 대표적 생태계 우수 지역은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및 람사르 습지 등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등재('12년 7개소^o → '20년 10개소 이상)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국립공원, 특정도서,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생물다양성 감소에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2년말 현재 22개소인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15년도까지 30개소로 확대하고, 생물자원 보전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12년 1개소 → '15년 5개소)하여,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동식물의 대체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및 관리 강화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복원 및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3년 4월말 현재 국내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동식물은 246종이며, 이중 반달가슴곰, 여우, 따오기 등 134종에 대한 증식·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년까지 175종의 동식물을 증식·복원할 예정이다.

'12년 7월 관찰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멸종위기종 지정 전후의 개체 수 증감 등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국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를 집적한 적색자료집(Red Data Book) 발간('11년 3개 분야 → '15년 종합발간)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무분별한 거래 및 관리 소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입 업체 및 관리 시설의 사전 등록제 시행 등을 위한 제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최근 불법 포획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남방큰돌고래 등 일련의 동물 학대 사례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조성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로 생태계의 서비스 생산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생태관광 지정제^o 도입('14년) 및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o 등을 통해 우수 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생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하고, 지자체 등에 생태관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생물자원 소재은행을 순차적으로 개소('10년 유전자

은행 → '13년 천연물은행 → '14년 종자은행)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이익공유 모델개발 사업도 분야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국민참여 확대

철새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등에 인센티브(보상 등)를 부여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산을 매입·보전하는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 등도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물다양성포럼(11년~)' 운영 및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정책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국민 참여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맺음말

우리 사회에는 생물다양성을 바라보는 매우 다양한 인식의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동식물의 보전을 위해서 인간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에서부터, 동식물을 인류 발전의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 인간을 위해서는 폭넓은 포획과 도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인식의 격차가 너무나 커 과연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하는 몇가지 사례가 정답은 아니어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격차를 줄여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순천만은 오래전부터 흑두루미 등 수 천 마리 철새의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어 보호가치가 우수한 지역이었으나, 정작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개발행위 등에 제약이 수반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06년 등록 이후 잘 보전된 철새 도래지를 보기 위해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그 수입만 연간 수천억에 달하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무분별한 등산로 개척 등을 막아, 산림 훼손은 줄이면서 탐방객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생물자원은 한번 사용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잘 보전하면 그 가치가 무한히 지속될 수 있다는데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싱그러운 5월을 맞아 자연의 생명력과 가치를 느껴보고,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② 한반도내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7개소)
- 남한 4개소 : 설악산('82년), 제주도('02년), 신안 다도해('09년), 광릉숲('10년)
- 북한 3개소 : 백두산('89년), 구월산('04년), 모황산('09년)
- ③ 생태관광 지정제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
- ④ 10대 선정지 : 경남창원(내륙습지), 전남순천(연안습지), 경기 파주·강원 화천(DMZ), 충남 서산(철새도래지), 전북 진안(산/경), 제주 거문오름(섬), 충남 태안(해안), 강원 평창(화석/동굴)